

제436회 국회 (임시회) 국무총리(한성숙)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6월18일(목)

장 소 제3회의장(245호)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9175)
4.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9175)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자료제출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
 - 위원장(백혜련) 인사 2
2. 간사 선임의 건 5
 - 간사(강승규·김한규) 인사 5
3.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9175) 6
4.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9175)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6
5. 자료제출요구의 건 7

(15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선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국회(임시회)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사회를 맡게 된 김선교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 등에 관한 보고사항은 노트북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선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위원장직무대행 김선교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국민의힘 소속 강승규 위원입니다.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위원님께서서는 3선 의원으로 경륜이 아주 깊으시고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당 최고위원을 역임하시면서 뛰어난 역량과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협치의 모습도 보여 주셨는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협치를 더 보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또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백혜련 위원님을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선교 강승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강승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백혜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혜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장직무대행, 백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백혜련) 인사

(15시13분)

○위원장 백혜련 먼저 저를 위원장에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승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고위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을 사전에 검증해서 그 직위에 걸맞은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의 대상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각부를 이끌고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를 아우르는 국무총리직, 국정의 중심 자리입니다. 부처를 통할하는 자리인 만큼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우리 위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실 있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회의이니만큼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왼쪽에 계시는 강승규 위원님께서 인사하시고 나서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가, 특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경우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쏠려 있고 대통령 유고 시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국민의 선출직이 아니면서도 가장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정에서 후보자의 자질 그리고 과거의 행적 그리고 그분의 미래 비전, 국정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힘을 모아서 여야 가리지 말고 제대로 인정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제주시를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여러분들과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여당이지만 후보자에 대해서 전문성과 도덕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충실히 습득하고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국회에서 과연 비준할 만한 인물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김선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국회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종합적인 행정을 다루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등등을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김동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위원**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입니다.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후보자를 맞이해서 청문회장에서 청문위원으로 참석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청문회 역시 제가 산자위에서 강승규 위원님과 함께 또 김한규 간사님과 함께 청문회를 진행했었는데 이번 청문회도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야가 정쟁이 아닌 정책적으로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감사합니다.

김희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야의 입장보다는 국회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백혜련**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박균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성숙 국무총리후보자가 매우 유능하고 또 신뢰감도 가고 국민적인 이미지도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증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영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榮夏 위원** 대구 달서갑의 유영하입니다.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짧아서 좋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구를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함께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함께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임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성과를 내셨고 또 사실상의 공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님을 잘 보필하면서 정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중하고 유능한 모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전에 사실상 첫 상임위와 비슷하게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요 서로 상호 존중과 협치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오늘 조정훈 위원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백승아 위원님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위원입니다.

우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최혁진입니다. 무소속이고요.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과 또 여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가 AI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의 초경쟁 사회로 진입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르게 이 속도를 따라잡고 선도할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얼마나 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느냐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총리후보께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민간에서도 입증을 하였고 중기부장관을 하시면서도 공공부문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검증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은 중기부장관 수준을 넘어서 전 부처를 아우르는 총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또 공공부문 전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막중한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실 수 있는지 충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을 중심으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마지막으로 이소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소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의 국정 통할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충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모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들었는데요. 인사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이번 청문회가 국회 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청문회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훈 위원님께서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명호 수석전문위원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검무 직원들이 우리 특위 회의를 지원하게 됩니다.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꺼번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22분)

○위원장 백혜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국민의힘의 강승규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강승규 위원님과 김한규 위원님이 각각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강승규·김한규) 인사

(15시23분)

○위원장 백혜련 선임된 간사님들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간사이신 강승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국무총리 한성숙 후보 임명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 투명하고 그리고 팩트를 아주 제대로 짚어 가면서 인사 검증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김한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청문위원님들께서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위원장님과 강승규 간사님과 함께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9175)

4.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9175)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5시24분)

○위원장 백혜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0일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서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 안건은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사위원으로 내정된 분들과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시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6월 25일·26일 양일간 실시하고 6월 29일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은 첫째 날에는 국무총리후보자의 모두발언 후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후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방송 중계 일정 등을 감안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7분, 이후 실시되는 추가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되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료제출요구의 건

(15시26분)

○위원장 백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자료요구의 경우 각 의원실로부터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모두 133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6월 22일 월요일 16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한 자료 이외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되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목록을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예.

○강승규 위원 의사진행발언해도 될까요? 자료제출 건 다음에 증인 및 참고인 명단 관련해서.

○위원장 백혜련 예, 강승규 간사님 말씀하세요.

○강승규 위원 국무총리후보자 인청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강승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인청의 실시계획서 채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김한규 간사 내정자와 사전에 두어 차례 만나서 잘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결국 저희가 채택하지 못했는데, 사실 인청의 쫓은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서 후보자가 말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주변인들 그리고 또 저희 위원들이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참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은 모두 11명입니다. 제가 일단 요구사항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한진수·한명숙, 후보자의 남동생과 여동생은 그동안 언론에도 나왔고 지난 중기부장관 인청에서도 문제가 됐던 삼청동 주택의 여러 사실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 두 가족이 사실상 지배자이고 운영자여서 이에 대해서 꼭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여당 측에서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인청에서 가장 핵심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남FC 뇌물 공여 의혹 관련해서 당시 대표 김상헌 대표가 기소 상태에서도 실제 이 부분에 본인이 대표이면서도 사실상 이런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그 당시에 부사장 하던 한성숙 후보자,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사실 규명이 필요한데 역시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 그다음에 채선주 네이버 전략사업 대표에 대해서도 여당 측이 증인 채택에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람 씨인데요. 소위 말해서 벤처기업의 대표들 간의 펀드 카르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당사자이고 NHN의 전 임원이고 우리 후보자가 여기에 투자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규명을 해야 되는데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또 지금 한성숙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총리후보자가 되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네이버와 이재명 정부와의 특수관계입니다. 성남FC 등으로 연결된 여러 가지 상황 등이, 네이버와 특수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진 네이버 총수 그다음에……

○위원장 백혜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강승규 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네이버와 두나무 간의 기업결합 관련해서 송치형 대표도 거부되었고요. 또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테크비즈니스 대표 최인혁 씨 그다음에 네이버 노조위원장 직장 괴롭힘 관련해서 오세운 참고인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당시 근로감독관 유효상 증인 그리고 후보자의 오피스텔 임차인 이 씨 등……

이렇게 열한 분에 대한 증인 채택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여당 측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청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바로 규명하는 게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여당 측이 끝내 이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저희들이 인청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이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추가로 의사진행발언……

김한규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증인 요구는 총리후보자 청문회를 신상 털기 또 정권 흠집 내기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신청 목록을 보면 후보자의 여동생·남동생이 제일 앞에 있는데요. 동생들에게 집과 가게를 빌려준 것을 문제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작년 7월 중기부장관 청문회 때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부족하면 후보자에게 물어볼 수 있음에도 굳이 가족들을 증언대에 앉히려는 것은 가족 신상 털기이자 모욕 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FC 의혹,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모두 중기부장관 청문회 때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성실히 소명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두나무·네이버 기업결합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이 기업결합은 한성숙 후보자가 네이버를 퇴사한 이후에 추진된 일입니다. 한성숙 후보자 청문회에서 기업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기부장관 청문회 당시에 여야 모두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인정해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간 후보자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도 없는데 성남FC나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자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성남FC에게 후원했을 때 후보자는 네이버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등기 이사도 아니었습니다. 비등기임원일 뿐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후원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 부분은 이미 중기부장관 청문회 때 후보자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인들을 신청하는 것은 결국 이번 청문회 대상을 한성숙 후보자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의도 아닙니까? 후보자의 도덕성·전문성과 관계없는 전형적인 신상 털기, 정권 흠집 내기용 증인 요구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청문회 2일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로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위원회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되려면 국회가 요청했던 사실에 기반한 자료 공식 문건이 충분히 오는 것과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이 오는 것 두 가지가 잘되어야 됩니다.

좀 전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로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제대로 소명이 안 됐다라는 사실을, 제가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성숙 후보자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총 1966건의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이 중에 제출률이 37%로 국무위원들 중에 굉장히 낮은 자료제출로 응답을 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를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장관 이후에 소명하겠다고 하면서 장관이 된 다음에 국회에 제출했냐 하면 바로 오늘까지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약속에 대한 소명이나 자료제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저희 간사가 얘기했던 증인·참고인과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참고인을 안 부르려면 서류라도 제출이 잘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족들을 증인으로 불렀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증여라든지 부당한 정부 지원금 수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납부한 증여세 내역을 달라, 2016년도에 돈이 증여가 되었는데 2022년도부터 증여세를 냈는지 그 사유를 달라고 했는데 당시 인사청문회 때도 이 자료는 제출된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외환 거래내역도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남FC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인·참고인을 부르기 싫으면 본인이 합당한 서류를 내면 되는데 한성숙 당시 부사장이 성남FC 뇌물공여 사건 관련해서 결재 라인에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내라, 회의록을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즉 서류도 내고 사람도 불러야 되는데 두 가지 다 하지 않고 그냥 장관이 된 다음에 뭉개고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자료 요구가 26.7%에 불과해 가

지고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는 후보자와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장관들도 이보다 더 높은 제출률을 보였던 경우에도 막판에 무더기로 제출하거나 거의 사실상 ‘답변 없음’ 이런 식의 자료가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철저히 검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서 깜깜이 청문회나 버티기 청문회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자료제출요구라도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답을 명확하게 받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중소기업부장관일 때의 인정 태도가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 밝힙니다.

.....

○**김동아 위원** 제가……

○**위원장 백혜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소영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이소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증인·참고인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들을, 여러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증인·참고인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이니만큼 잘, 엄정하고 섬세하게 선정하고 부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야당일 때도 인사청문 할 때 후보자의 가족을 부르는 것은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언니, 동생, 자녀, 배우자까지 줄줄이 가족을 부르자고 하는 건 국회가 검증도 좋지만 좀 자제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여든 야든 어떤 입장에 있든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요.

가족에게 물어봐야 되는 건 본인에게 물어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료 요구를, 저희가 더 확실하게 자료를 잘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무위원 되기 위해서 가족들까지 줄줄이 청문회에 불러 나와야 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유능한 인재들을 국무위원에 등용할 수 있을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요청하신 증인 중에서 후보자가 보유한 오피스텔의 임차인도 포함돼 있는 걸 보고 저는 너무하지 않나,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제 사무실을 임차인으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장관이나 총리 되면 저도, 임차인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성남FC 관련해서도 이걸 이번 청문회의 핵심사항이다 해서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후보자가 당시 성남FC 후원과 관련한 직급도 아니었고 당시 경찰·검찰 조사도 일체 받은 바도 없고 공소장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네이버에서 일했으니까 관련성 있는 것 아니냐, 증인 불러서 물어보자 이렇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건 국회가 너무 정제되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하게 청문회 하

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사청문 엄밀하게 잘해야 되고요. 충실한 자세로 임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이번 인사청문은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청문이 아니라 한성숙 총리후보자에 대한 청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총리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본인의 행위나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엄밀하게 정밀하게 포커스를 잘 맞춰서 진행해야 국민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청문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김동아 위원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柳榮夏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청문회에 가족들을 부르는 건 자제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증인 신청한 걸 보니까 그중에 한성숙 후보자 지난번 중기부장관 청문회 때도 얘기했던 불법 증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동생을 철회하는 대신에 이 디자인했던 디자인 업체 대표가 있습니다. 길연디자인의 이길연 대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인은 두 분 간사께서 협의해서 증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더 이상 발언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고요.

지금 김희정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제가 지난번 청문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파악을 해 보고요. 가능하면 후보자가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유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증인은 다시 간사들 간에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위해서 서면질의 및 구두질의와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르면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송달되도록 하고 구두질의는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질의서는 6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구두질의서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국무총리(한성숙)에 대한 인사청

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승규 김동아 김선교 김한규 김희정 박균택 박선원 백승아 백혜련 유영하
이소영 최혁진

○청가 위원(1인)

조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김정연
전문위원 이선주

【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동아 김한규 박균택 백혜련 송재봉 이소영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2026. 6. 15.
강승규 김선교 김희정 조정훈 유영하	국민의힘	
최혁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송재봉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2026. 6. 17.
전용기	백승아		

○의안 회부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2026. 6. 10. 대통령 제출)(의안번호 2219175)

6월 11일 회부됨